

남녀노인의 노년시작인식연령과 노인인지*

김정석** · 김송은

동국대학교-서울 사회학과 교수 · 동국대학교-서울 사회학과 대학원생

이 논문은 한국노인들이 노인이 되는 연령을 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들이 자신을 노인으로 인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이러한 인식과 인지는 노인들의 여러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 논문에서는 성별 차이와 그 원인에 주목하고 있다. 노년시작인식연령과 노인으로서의 자기인지 항목을 담고 있는 <2004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년시작인식연령은 남성노인보다는 여성노인에게서 더 낮게 나타나며 노인으로서의 자기인지는 여성노인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여성노인은 남성노인보다 좀 더 이른 시기에 노년에 접어들며, 동일한 연령대라 하더라도 스스로를 노인으로 인지하는 비율이 높다. 한편, 노년시작인식연령과 노인자기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남녀별로 차이를 보인다. 노년시작인식연령의 경우, 남성노인에게서는 교육수준이, 여성노인에게서는 건강상태의 효과가 차별적으로 나타난다. 노인자기인지 또한 성별로 차별적인 효과를 보이는데 남성노인에게서는 연령과 결혼상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여성노인에게서는 건강상태의 효과가 특히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들은 남성과 여성의 '노인되기' 경험이 서로 다르게 전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주제어 : 성별 차이, 노년인식, 노년시작인식연령, 노인인지

■ 투고일 : 2011. 11. 19. ■ 심사완료일 : 2012. 2. 20. ■ 게재확정일 : 2012. 2. 25.

I. 들어가는 말

이 연구는 노인들의 인식을 통해 고령화 현상의 일면에 접근하고자 한다. 우선, 한국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노년시작연령이 언제부터이며, 그것이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다를 것인지를 살펴 피는데서 출발하고자 한다. 이를 이어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스스로를 노인으로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인지를 살펴본

다. 이 과정에서 성별 차이에 특히 주목하기로 한다.

대체로 노인을 규정하는 데에는 역연령이 사용된다. 그러나 노년이 시작되는 연령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함의를 찾기는 쉽지 않다(한국노년학회, 2002). 예를 들면, 경제생산활동이나 소비활동연구에서는 노년층을 55세 이상으로 접근한다(조경섭, 이은희, 2007). 이와 달리 정부기관이나 국제기관에서는 대체로 65세 이상을 노년인구로 간주한다.

역연령에 의한 노인규정은 정책수행과 논의를 위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 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30-B00138).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배재대 이혜경교수님과 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교신저자: 동국대학교-서울 사회학과 / chkim108@dongguk.edu

한 현실적인 필요성을 가진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이러한 연령기준점이 노인들 내에서 관찰되기 보다는 외부적으로 주어진다라는 점이다. 사회적, 정책적 필요에 의해 생성된 노년규정연령은 노화의 개인 차이를 무시한 채 노인집단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형성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김육, 2002; 이경희, 2011).

이 연구에서는 통상적으로 노인이라고 규정되는 연령대의 개인들이 노년시작연령을 언제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핀다. 노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사회적으로 만연하다면, 이들이 노년시작연령을 높게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노인으로 규정되기를 최대한 지연하거나 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노인으로 규정되기를 피하고자 하는 경향은 노년에 부여된 부정적 특성에서 벗어난 노인일수록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건강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노인보다는 건강하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인일수록 스스로를 노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약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노년층 내에서도 노년시작연령을 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해 상당한 이질성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노인들이 노년시작연령을 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에 주목한 연구들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노년시작연령에 대한 인식이 노년 혹은 노인 전반에 관한 노인들의 일반적 이해라면, 노인으로서의 자기인지는 노인 개인의 정체성에 주목한다. 현대사회에서 노인들은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나게 되었으며 언론매체들은 이를 더 공고히 한다(구자순, 1984; 이경희, 2011; 정진웅, 2003; Christian, 2005; Fealy, McNamara, Treacy & Lyons, 2011; Thompson, 2006).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 '노인되기'란 부정적 현상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노인들 스스로가 노인임을 부정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따라 노인들은 노인으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모순된 인식

을 갖게 된다(이지영, 2009; 최성재, 2009; Allan, 2009, Clarke, 2001; Lund & Engelsrud, 2008). 이는 다시 노인들의 노년기에 대한 태도나 자아존중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남석인, 2008; 신학진, 2010; 안준희, 김승용, 2009). 이러한 점에서 노인들이 노년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살펴보는 작업은 노년층 이해를 위해 중요하다.

노인 혹은 노년인식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다른 세대가 어떻게 노인을 인식하는지를 살피고 있다(강명희, 1990; 배문조, 2009; 이인수, 2000; 최성재, 2009; 한정란, 2003; 한정란, 이금룡, 원영희, 2006; Allan, 2009). 이 연구들은 노인 자신들이 노년 혹은 노인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살피지는 못하고 있다. 한편, 노인들의 노인인식에 주목한 연구들(이금룡, 2008; 이지영, 2009)은 노년의 성격과 내용에 대한 노인들의 이해에 집중되어, 노년층 내에서 발견되는 차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는 한계를 보인다. 이 연구는 노년시작연령에 대한 노인들의 인식과 함께, 노년으로서의 자기 인지가 노년층 내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에 집중하고 있다.

II. 선행연구고찰

노년시작연령과 노인으로서의 자기인지라는 주제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성별 차이에 대한 논의를 찾는 것 또한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인식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인식이 남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개연성이 확인된다.

우선 노인을 정의할 때, 남성들에게서는 연령과 계급이, 여성들에게서는 건강과 외모가 주요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다(Musaiger & D'Souza, 2009). 남성들은 사회에서 규정한 연령에 은퇴를 경험하면서 역연령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와 달리 여성들은 젊음이나 아름다움으로 대표되는 자원을 상실

하면서 노년기를 맞이한다.

노인을 정의하는 요소에서 발견된 남녀간 차이는 일생동안 축적된 여성과 남성의 상이한 역할 수행과도 관련이 깊다(Calasantì, 2008; Rubino, Winter & Stewart, 2004; Russell, 2007). 일생을 거쳐 '남성은 노동, 여성은 가사일'로 형성된 고정관념은 노년기에도 이어져 '남성노인은 은퇴자, 여성노인은 할머니'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Wilinska, 2010).

남녀별 노인인식은 노년기라는 생애주기를 맞는 태도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전 생애에 걸쳐 가정에서 남편과 자녀를 돌보던 여성들은 노년기를 맞이하면서 삶의 유한성을 자각하게 된다. 또한 가족내 성별 분업이 약화되면서 여성들에게 노년기는 새로운 삶의 전환기로 인식된다(곽삼근, 박성희, 김은경, 2008). 이 과정에서 여성들이 노년 혹은 노인임을 부정하는 계기는 어느 정도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남성의 경우, 은퇴 후 가정에서 자신의 역할과 권위가 약화되거나 상실되기 때문에 스스로 노인으로 인정하는데 많은 혼란을 겪게 된다(Russell, 2007).

노인인식에 대한 남녀별 차이는 경제활동상황이나 경제적 여건, 건강상태 등에 따라서도 발견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성들은 노동시장에서의 유용성, 즉 취업상태에 따라 노년기와 그 이전을 구별하는 경향이 있다. 남성들이 은퇴 혹은 실업을 경험하면서 노동시장에서 자신을 무용하게 느끼게 된다면, 이는 노인으로서의 자기 인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남석인, 2008). 한편, 여성들의 노년기 취업은 대체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것이 많다(이성용, 방하남, 2009). 남성들과는 달리 여성 노인들에게 현재의 경제활동은 노동시장에서의 유용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다. 따라서 여성노인들의 취업이 노년시작인식연령이나 노인으로서의 자기인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하기는 힘들다.

노년기의 경제적 상황 또한 노인인식의 차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노년기의 경제적 빈곤은 노인에게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도한다(이지영, 2009).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긴 노후를 혼자 보내야

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경제적 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노년기의 빈곤은 여성들의 부정적 노인인식과 연관되어 있다(Calasantì, 2010). 이를 통해 볼 때, 경제적 자원이 있는 노인일수록 스스로를 노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낮으며 남녀간에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노인의 '몸' 또한 스스로를 노인으로 보는가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몸'이 노년인식에 작동하는 방식 또한 남녀에 따라 차별적이다. 남성에게서 '몸'은 건강상태를 의미하고, 건강은 사회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자원이다. 이와 달리 여성에게서 '몸'은 건강상태 뿐 아니라, 일생동안 여성에게 중요한 자원으로 간주되는 외모를 뜻하기도 한다(Calasantì, 2005; Clarke & Korotchenko, 2010; Paulson & Willig, 2011). 이는 노인들이 건강상태를 단순히 질병여부에 따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요인들과 함께 복합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이정화, 2006).

이상의 선행연구와 논의들은 남녀 노인이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나 조건에 따라 차별적으로 노인되기를 경험함을 시사한다(이금룡, 2006; 이상립, 2009). 이러한 차별적 경험은 노년시작연령에 대한 인식과 노인으로서 자기인지여부와 연관되어 나타날 것이다. 이 연구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노인들의 노년시작연령에 대한 인식과 노인으로서의 자기인지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현재 취업상태, 경제적 상황, 건강상태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를 탐색하고자 한다. 동시에 이러한 변수들의 효과가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Ⅲ. 자료 및 연구방법

이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요구조사>를 이용한다. 보다 최근에 이루어진 <200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요구조사>에는 이 연구의 분석대상

인 노년시작인식연령이나 노인으로서의 자기인지여부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시간이 다소 경과하기는 하였으나, 분석대상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표본의 크기나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는 2004년 자료를 이용하기로 한다.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자료는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중 180개 표본조사지역을 추출하여 2004년 6월 28일부터 9월 10일까지 총 75일 기간 중 65세 이상 가구원 3,278명에 대한 노인 개인조사 결과이다. 이 연구는 해당 변수에 결측치를 보인 268사례를 제외한 3,010사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 중에서 여성노인은 1,844사례로 전체 중에 61.3%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의 <표 1>은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변수와 사례의 분포를 성별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변수는 노년시작인식연령과 노인으로서의 자기인지 여부이다. 노년시작인식연령은 “일반적으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몇 세 정도입니까?”라는 질문문항을 통해 측정되었다. 이에 대한 응답범주는 ‘60세 미만’,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으로 총 7개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노년이 시작된다고 인식되는 연령층에 대한 응답은 ‘65~69세’, ‘70~74세’ 두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다. 대체적으로 노인들은 60대 후반과 70대 초반을 노년기의 시작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녀별로 살펴보면,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에게서 노년시작연령의 변이가 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들의 경우 앞서 언급한 두 연령층에 82.4%가 집중되어 있다. 반면, 여성들에게서 해당 비율은 75.2%이며, 15.7%가 그보다 하위연령층인 ‘60~64세’로 응답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노년시작연령을 낮게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노인으로서 자기인지여부는 “어르신께서는 어떤 계기에 의하여 노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표 1> 변수들과 사례분포

변수	전체	남자	여자
사례수 (명)	3,010	1,166	1,844
성			
1=여성 (0=남성)	61.3		
노년시작인식연령			
1=60세 미만	0.5	0.5	0.6
2=60~64세	12.8	8.3	15.7
3=65~69세	30.8	33.7	29.0
4=70~74세	47.2	48.7	46.2
5=75~79세	4.3	4.2	4.4
6=80~84세	4.1	4.2	4.0
7=85세 이상	0.2	0.3	0.1
노인인지 여부			
1=예 (0=아니오)	88.1	81.2	92.4
거주지역			
1=읍면부 (0=동부)	32.2	31.5	32.6
현재연령			
1=65~69세	40.2	45.8	36.7
2=70~74세	29.8	30.4	29.4
3=75세 이상	30.0	23.8	33.9
결혼상태			
1=무배우자 (0=유배우자)	43.4	10.5	64.1
교육수준			
1=초등학교 이하	74.0	51.8	88.1
2=중학교	10.0	16.5	5.9
3=고등학교 이상	16.0	31.8	6.1
현 취업상태			
1=취업 (0=비취업)	30.7	41.8	23.8
주관적 경제생활정도			
1=하 (0=중 이상)	62.3	60.1	63.7
동년배 비교한 건강상태			
1=좋다	33.7	46.9	25.4
2=보통	27.8	26.3	28.7
3=나쁘다	38.5	26.8	45.9
현재연령-노년시작인식연령			
1 현재연령>인식연령	44.2	38.5	47.8
2 현재연령=인식연령	31.6	32.1	31.3
3 현재연령<인식연령	24.2	29.5	20.8

단위: 사례수 (명), 변수 (%)

문항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 문항에 대하여 “생각해본 적 없거나”,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응답을 한 노인들은 자신을 노인으로 인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 문항의 후속으로 노인이 된 계기에 대한 문항이 있는데, 후속문항에 유효한 응답을 한 노인들은 스스로 노인이라고 인지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 결과, 스스로를 노인이라고 인지

하는 비율은 88.1%이다. 여기서도 성별 차이가 발견되는데, 남성(81.2%)에 비해 여성(92.4%)에게서 노인이라고 인지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는 노년시작연령에 대한 인식과 노인으로서의 자기인지여부가 노인들의 성 뿐만 아니라 사회인구학적 특성, 현재 취업상태, 경제적 상황, 건강상태에 따라 다를 것으로 예측하였다.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 거주지역은 동부와 읍면부로 구분하였다. 읍면부에 거주하는 비율이 전체 노인 중 32.2%였으며, 이는 남녀별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연령은 60대 후반, 70대 초반, 70대 후반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고 남성에 비해 여성이 고령층에 좀 더 많이 분포되어 있다.

결혼상태는 현재 배우자 유무로 구분하였는데, 무배우자(대부분이 사별) 비율의 경우 남성 10.5%, 여성 64.1%로 여성노인에게서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이는 남녀간 평균수명의 차이와 함께 성별 재혼율의 차이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수준은 초등학교이하, 중학교, 고등학교이상의 세 범주로 나누었다. 교육수준에서도 남성노인보다는 여성노인의 초등학교 이하 비율이 훨씬 높아 여성노인에 저학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현재취업상태는 “어르신께서는 현재 수입이 되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로 측정하였다. 노년기에 노동이 남성과 여성에게 각각 다른 의미임을 고려하여 취업여부가 성별에 따라 노년인식에 차별적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추가하였다. 현재 취업중인 비율은 남성 41.8%, 여성 23.8%로 남성에게서 그 비율이 훨씬 높다. 생활정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귀하의 생활정도는 어느 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문항에는 ‘상상’, ‘상하’, ‘중상’, ‘중하’, ‘하상’, ‘하하’로 총 6개의 범주가 있는데 ‘상’이라고 응답한 사례가 극히 적어 ‘중 이상’과 ‘하’로 이분하였다.

건강상태는 “동년배의 다른 노인들에 비하여 어르신 건강상태는 어떤 편이십니까?”라는 문항을

이용하여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측정하였다. 기력의 쇠퇴나 질병 등 신체적 노화로 인해 스스로를 노인으로 인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들이 보다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앞의 <표 1>의 마지막 변수는 노인으로서의 자기인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항목이다. 이는 현재 연령과 노년시작인식연령의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노년시작연령에 대한 인식이 노인인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추가하였다. 현재연령은 만 나이(1년 단위의 각 세)로, 노년시작인식연령은 연령대(대체로 5년단위)로 측정하였다. 노인들의 현재연령은 5년단위로 구분하였고, 5년단위의 현재연령과 5세단위의 노년시작인식연령을 대조하여 변수를 생성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연령이 노년시작인식연령보다 높은 경우, 현재연령이 노년시작인식연령보다 낮은 경우, 두 연령이 일치할 경우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자신이 생각하는 노년시작연령보다 나이가 더 많은 노인은 스스로를 노인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당연히 높다. 또한 자신이 생각하는 노년시작연령보다 나이가 적은 노인이 스스로를 노인으로 인지할 가능성은 낮다.

이 연구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노년시작인식연령’은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노인인지’여부는 이항로지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성별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차이가 나타나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남녀전체, 남성, 여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IV. 분석 결과

1. 노년시작인식연령

노년시작인식연령에 대한 남녀전체와 남녀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노년시작연령에 대한 남녀별 다중회귀분석결과

변수	전체(n=3010)				남자(n=1,166)				여자(n=1,844)			
	b	s.e	β	p값	b	s.e	β	p값	b	s.e	β	p값
상수	3.723***	0.054		0.000	3.703***	0.068		0.000	3.596***	0.102		0.000
성 (준거: 남성)												
여성	-0.083	0.045	-0.043	0.066
거주지역 (준거: 동부)												
읍면부	-0.089*	0.039	-0.044	0.023	-0.107	0.061	-0.055	0.079	-0.074	0.051	-0.036	0.146
연령 (준거: 65~69세)												
70~74세	0.103*	0.042	0.050	0.014	0.069	0.062	0.035	0.269	0.122*	0.057	0.058	0.031
75세 이상	0.243***	0.045	0.118	0.000	0.248***	0.070	0.117	0.000	0.232***	0.058	0.113	0.000
결혼상태 (준거: 유배우자)												
무배우자	-0.004	0.042	-0.002	0.922	-0.129	0.087	-0.044	0.137	0.024	0.050	0.012	0.629
교육수준 (준거: 고등학교 이상)												
초등학교 이하	-0.110*	0.054	-0.051	0.042	-0.155*	0.065	-0.086	0.017	-0.040	0.098	-0.013	0.683
중학교	-0.111	0.069	-0.035	0.109	-0.100	0.081	-0.041	0.215	-0.112	0.130	-0.027	0.390
현재 취업상태 (준거: 비취업)												
취업	-0.040	0.041	-0.019	0.337	0.037	0.058	0.020	0.529	-0.108	0.058	-0.048	0.062
경제생활정도 (준거: 중 이상)												
하	-0.043	0.036	-0.022	0.235	0.004	0.055	0.002	0.944	-0.075	0.048	-0.037	0.117
건강상태 (준거: 좋다)												
보통	-0.037	0.044	-0.017	0.410	-0.040	0.064	-0.019	0.539	-0.031	0.061	-0.014	0.618
나쁘다	-0.138**	0.043	-0.071	0.001	-0.100	0.066	-0.049	0.129	-0.155**	0.057	-0.080	0.006
Adj-R ²	0.021				0.014				0.020			

주: * $p < .05$, ** $p < .01$ *** $p < .001$

우선 남녀전체 사례의 분석결과를 보면, 성에 따라 어느 정도 유의미한 차이($p=0.066$)를 보여준다.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노년이 시작되는 연령을 좀 더 낮게 인식하고 있다. 또한 노년시작인식연령은 거주 지역,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등에 따라 다르게 인식됨을 알 수 있다.

동부 보다는 읍면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노년시작인식연령을 좀 더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연령의 경우, 흥미롭게도 연령이 높을수록 노년시작연령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역연령에 따라 사회에서 노인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고연령층에서 스스로를 노인이라고 인정하기 꺼려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교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노인들에 비해 초등학교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진 노인들에게서 노년시작연령이 낮게 인식되고 있다. 건강상태의 효과도 발견되는데, 건강이 좋지 못한 노인이 건강이 좋은 노인보다 노년시작연령을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결혼상태, 현재 취업상태, 경제적 생활수준 등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남녀별로 실시한 분석모형의 결과는 성에 따라 유의한 변수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연령의 효과는 여성에게서 그 효과가 보다 분명하며 일관성이 있다. 즉, 남성노인에게서는 75세 이상의 경우

에만 연령효과가 유의미하지만, 여성노인에게서는 연령증가에 따른 효과가 일관적으로 나타난다.

교육수준의 효과는 남성에게서만 발견된다. 건강상태의 효과는 오히려 여성노인들에게서만 발견되었다. 건강하지 않은 여성노인이 건강한 여성노인에 비해 노년시작인식연령을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거주지역을 포함해 여러 요인들을 통제했을 때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연령에 따른 차이가 공통적으로 발견되며, 연령이 높을수록 노년시작연령을 높게 인식하는 경향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연령의 효과가 여성노인에게서 보다 일관적이고 뚜렷하게 발견되었다.

노년시작인식연령에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들의 성별 차이도 어느 정도 발견된다. 남성노인에게서는 교육수준이, 여성노인에게서는 건강상태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노인들에게서 교육, 그리고 여성노인들에게서 건강이 주요변인이 된다는 것은 남성에게서 계급적 요인, 여성에게서 외모와 건강 등 '몸'의 요인이 노년인식과 관련 있다는 기존의 논의(Musaiger & D'Souza, 2009)와 그 맥을 함께 한다.

2. 노인인지

노인이 스스로를 노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남녀전체와 남녀별로 로짓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여기서 로짓은 스스로 노인이라고 인지하지 않은 사람에 대비해 노인이라고 인지한다는 응답의 로그오즈(log-odds)이다.

남녀전체에 대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노년시작인식연령에서보다 노인인지에서 남녀간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즉, 남성노인들에 비해 여성노인들이 스스로를 노인이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뚜렷하게 높다. 노년시작인식연령이 노인이 되는 연령에 대한 다소 일반적인 질문이라면, 노인인지여부는 응답자 자신이 스스로를 노인이라고 생각하

는지를 묻는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질문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질문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노인인지 여부에서 남녀차이가 더 분명하고 크다는 점은 좀더 개인적인 사항으로 올수록 남녀간 차이가 분명해짐을 시사한다.

성별 이외에, 노인인지여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로는 연령, 건강상태 및 현재연령과 노년시작인식연령간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연령에서는 예상되는 바와 같이, 연령이 높을수록 스스로를 노인으로 인지하는 비율이 높아진다. 건강상태에 있어서는 건강이 나쁠수록 스스로를 노인으로 인지하는 비율이 높다. 또한 현재연령과 노년시작인식연령간의 차이에서는 현재연령이 노년시작인식연령을 초과한 노인일수록 스스로를 노인으로 인지하는 비율이 높다.

남녀별로 살펴본 결과는 남녀전체에서 나타난 유형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남녀전체에서 연령변수와 현재연령과 노년시작연령의 차이변수는 모두 노인인지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으로 나누어봤을 때 이 두 변수의 효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현재연령과 노년시작인식연령의 차이변수와 연령 변수가 남성노인들에게서는 모두 유의하게 나타난다. 남성노인들에게는 노년시작연령에 이르렀는가와 함께 연령증가가 스스로를 노인으로 생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여성노인들에게서는 유의미한 연령효과가 발견되지 않는다.

여성노인들의 경우, 노년시작인식연령을 초과한 이후에는 더 이상 연령에 따라 스스로를 노인으로 인지하는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노인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노년시작인식연령을 통과한 이후에는 대체로 스스로를 노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함을 의미한다.

건강상태의 효과 또한 남녀노인 모두에게서 발견되지만, 여성노인에게서 그 효과가 보다 크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남성에게서도 건강변

<표 3> 노인인지여부에 대한 남녀별 로짓회귀분석결과

변수	전체(n=3,010)				남자(n=1,166)				여자(n=1,844)			
	b	s.e	exp(b)	p값	b	s.e	exp(b)	p값	b	s.e	exp(b)	p값
상수	0.684***	0.183	1.983	0.000	0.681**	0.230	1.975	0.003	1.124**	0.336	3.077	0.001
성 (준거: 남성)				
여성	0.734***	0.157	2.084	0.000
거주지역 (준거: 동부)												
읍면부	0.175	0.146	1.191	0.230	0.326	0.197	1.386	0.097	-0.008	0.222	0.993	0.973
연령 (준거: 65-69세)												
70-74세	0.585**	0.169	1.794	0.001	0.684**	0.222	1.982	0.002	0.383	0.267	1.466	0.152
75세 이상	0.712**	0.217	2.039	0.001	1.170***	0.318	3.222	0.000	0.181	0.310	1.198	0.560
결혼상태 (준거:유배우자)												
무배우자	-0.203	0.160	0.817	0.206	-0.648*	0.263	0.523	0.014	0.080	0.200	1.083	0.690
교육수준 (준거: 고등학교 이상)												
초등학교 이하	0.265	0.161	1.303	0.101	0.057	0.192	1.059	0.767	0.735*	0.296	2.085	0.013
중학교	0.251	0.204	1.285	0.218	0.294	0.243	1.342	0.226	0.213	0.389	1.238	0.583
현재 취업상태 (준거: 비취업)												
취업	0.113	0.140	1.119	0.422	0.064	0.175	1.066	0.715	0.155	0.239	1.167	0.518
경제생활정도 (준거: 중 이상)												
하	0.078	0.125	1.081	0.532	0.133	0.167	1.142	0.425	-0.031	0.195	0.970	0.874
건강상태 (준거: 좋다)												
보통	0.537***	0.145	1.711	0.000	0.718***	0.201	2.051	0.000	0.409	0.213	1.505	0.055
나쁘다	1.179***	0.162	3.251	0.000	0.873***	0.219	2.393	0.000	1.482***	0.246	4.402	0.000
현재연령-노년시작인식연령 (준거: 현재연령=인식연령)												
현재연령>인식연령	0.555**	0.196	1.742	0.005	0.493	0.264	1.636	0.062	0.664*	0.297	1.942	0.025
현재연령<인식연령	-0.838***	0.148	0.432	0.000	-0.776***	0.194	0.460	0.000	-0.932***	0.231	0.394	0.000
Chi 지승 값(df)	346.842 (13)				151.609 (12)				135.511 (12)			

주: * p<.05, ** p<.01 *** p<.001

수는 일관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건강상태가 나쁠 경우, 노인인지여부의 정도는 여성에게서 훨씬 강하게 나타난다. 건강상태가 나쁘다는 여성노인은 건강상태가 좋다는 여성노인에 비해 스스로를 노인으로 인지할 가능성이 4.4배정도 높다. 이에 상응하는 남성들간 건강상태별 차이는 2.4배 정도에 머무른다. 따라서 건강상태가 남녀노인 모두에게 중요하지만, 그 중요성은 여성노인들에게서 훨씬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남녀전체분석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결혼상

태의 효과와 교육수준의 효과는 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발견된다. 남성노인에게서 발견된 결혼상태의 효과는 무배우자들이 유배우자에 비해 스스로를 노인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낮음을 보여준다. 이는 은퇴후 배우자가 있는 남성노인들이 가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지 못하고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스스로를 노인이라고 인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추측할 수 있다.

결혼상태와는 달리, 교육수준은 여성노인에게만 유의한 변수로 나타난다. 고등학교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노인들에 비해 초등학교이하 학력의 노인여성들이 스스로를 노인이라고 인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연령이 통제된 상황에서 나타나는 이 같은 교육의 효과는 보다 근대적인 교육을 받은 여성일 수록 스스로를 노인으로 인지할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준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노인 혹은 노년에 대한 인식을 노년 시작연령에 대한 인식과 노인으로서의 자기인지여부라는 주제로 접근하였다. 이들 주제에 대하여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년인식과 관련된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은 성과 함께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노년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인 노년시작연령과 노인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노인으로서 자기인지는 노인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여성이 노년 시작연령을 더욱 낮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스스로 노인이라고 인지하는 경향도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 연구에서 주요한 변수로 주목한 성이 노년인식에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성 변수는 노년시작연령에 대한 인식에서보다 자기인지에서 더 유의하게 나타난다. 이는 노년에 대한 노인들의 인식이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수준에서 남녀간 차이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이 연구에서는 노년인식이 성에 따라 차이를 보일 뿐 아니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또한 남녀에 따라 차별적이라는 예측을 담은 탐색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노년시작인식연령은 남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남성노인보다는 여성노인들에게서 노년기가 시작되는 연령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노년 시작인식연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그 영향

의 크기도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성노인에게는 학력수준이, 여성노인에게는 건강상태가 노년시작인식연령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스스로를 노인이라고 인지하는 경향도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노인인지여부에서 연령의 효과는 남성노인에게서, 건강상태의 효과는 여성노인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노인들에게는 노년시작인식연령과 함께 노인인지여부에서도 자신의 건강상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들은 노인들 내에서도 노년이 시작된다고 생각되는 연령, 그리고 자신이 노인이라고 인지하는가 등은 노인들의 성에 따라 다를 뿐 아니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들도 차별적임을 보여준다. 이는 노인들 내에서도 노인 혹은 노년에 대한 인식이 다양하며 복합적임을 확인시켜준다. 앞으로 노년기로 진입할 세대(예. 베이비부머)들이 이전의 노인세대와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차이가 확연하다면, 그만큼 노인들의 이질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노인들에게서도 노인 혹은 노년은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가령, 건강상태가 좋거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노인들은 스스로를 노인이라고 인지하는 경향이 낮다. 이 같은 현상은 '노인되기'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해되며, 이는 다시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전제된다.

노인 혹은 노년이 사회적으로 부정되기 보다는 자연스런 현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에서는 '노인되기'에 대한 거부감이 덜하다고 알려져 있다(Macia, Lahman, Bali, Boetsch & Chapuis-Lucciani, 2009; Yun & Lachman, 2006). 이를 감안한다면,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노인되기에 대한 거부감과 불안을 경감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시작인식연령과 노인인지여부에 대한 계량적 접근을 실시한 이 연구가 갖는 한계도 분명하다. 해당 주제에 대한 논의와 경험적 연구물이 축적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교한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 연구에서는 관련문헌들에서 언급된 요인들에 기대어 설명틀을 준비하였으며, 그 설명틀이 기술적인 수준에 머물렀다는 한계를 가진다. 다만 이 연구가 실험적이거나 후속연구들을 위한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명희(1990).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 연구. **가정관리 연구**, 11(5), 5-17.
- 곽삼근·박성희·김은경(2008). 여성노인의 젠더 불평등 경험과 인식전환에 대한 연구. **한국여성학**, 24(4), 141-174.
- 구자순(1984). 현대사회와 노인. **현상과 인식**, 8(4), 58-82.
- 김옥(2002). 억압의 한 형태로서의 노인차별주의(Ageism): 사회복지적 대응과 함의. **사회복지정책**, 14, 97-118.
- 남석인(2008). 남성노인의 차별경험이 노인인식 및 노년기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8(4), 1297-1315.
- 배문조(2009). 중년기 성인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9(3), 1107-1122.
- 신학진(2010). 노인의 차별경험이 자아통합감을 매개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30(2), 551-565.
- 안준희·김승용(2009). 노인의 차별경험이 자아이미지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경제적 참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9(4), 1645-1663.
- 이경희(2011). 교과서 속의 Ageism. **교육비평**, 26, 147-165.
- 이금룡(2006). 한국사회의 노년기 연령규범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6(1), 143-159.
- 이금룡(2008).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가?: 인지연령과 차이연령 분석에 근거한 한국사회의 노년기 연령정체성 연구. **한국노년학**, 28(2), 251-267.
- 이상림(2009). 한국의 노년과 연령주의: 차별과 배제의 중층성. **한국사회학회 후기학술대회발표논문**.
- 이성용·방하남(2009). 성·연령별 중·고령 노동자의 취업 양극화 분석. **한국노년학**, 29(2), 593-610.
- 이인수(2000). 농촌지역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인식도 연구. **한국노년학**, 20(2), 123-135.
- 이정화(2006). 농촌노인의 성과 연령에 따른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의 상호관계.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지**, 17(2), 15-30.
- 이지영(2009). 노년담론에 대한 노인의 인식과 대응에 관한 질적연구: 자아상과 노인상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9(3), 1001-1024.
- 정진웅(2003). 노년의꿈, 타자화된 노년과 공상적 노년담론을 넘어서. **당대비평**, 22, 319-329.
- 조경섭·김은희(2007). 실버 시장의 세분화 변인 특성: 인지연령과 역연령 인식과 라이프스타일 변인을 중심으로. **디자인학 연구**, 22(1), 5-16.
- 최성재(2009). 수도권 지역 중년기 이후 세대의 노후생활 인식과 노인에 대한 인식. **한국노년학**, 29(1), 329-352.
- 한국노년학회(2002). **노년학의 이해**. 서울: 대영문화사.
- 한정란(2003). 청소년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 연구. **한국노년학**, 23(4), 181-194.
- 한정란·이금룡·원영희(2006). 청소년과 노년 세대간 태도분석: 상호지향성 및 중요도-실행도 분석모형을 기초로. **한국노년학**, 26(2), 381-402.
- Allan, L. J.(2009). Undergraduate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The role of knowledge, contact and aging anxiety. *Educational Gerontology*, 35, 1-14.
- Calasanti, T.(2005). Ageism, gravity, and gender: experiences of aging bodies. *Generations*, 29(3), 8-12.
- Calasanti, T.(2008). A feminist confronts ageism. *Journal of Aging Studies*, 22, 152-157.
- Calasanti, T.(2010). Gender relations and applied research on aging. *The Gerontologist*, 50(6), 720-734.
- Christian, S.(2005). Differences in age can be a strength. *Off Our Backs*, 35(9), 25-27.

- Clarke, L. H.(2001). Older women's bodies and the self: the construction of identity in later life. *Canadian Review of Sociology & Anthropology*, 38(4), 441-464.
- Clarke, L. H. & Korotchenko, A.(2010). Shades of grey: to dye or not to dye one's hair in later life. *Ageing & Society*, 30, 1011-1026.
- Fealy, G., McNamara, M., Treacy, M.P. & Lyons, I.(2011). Constructing ageing and age identities: a case study of newspaper discourses. *Ageing & Society*, 1-18.
- Lund, A. & Engelsrud, G.(2008). 'I am not that old': inter-personal experiences of thriving and threats at a senior centre. *Ageing & Society*, 28, 675-692.
- Macia, E., Lahman, A., Bali, A., Boetsch, G., & Chapuis-Lucciani, N.(2009). Perception of age stereotypes and self-perception of aging: a comparison of French and Moroccan populations. *Journal of cross-cultural Gerontology*, 24, 391-410.
- Musaiger, A. O. & D'Souza R.(2009). Role of age and gender in the perception of aging. *Archives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 48(1), 50-57.
- Paulson, S. & Willig, C.(2011). Older women and everyday talk about the ageing body.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3(1), 106-120.
- Rubino, K. M., Winter, D. G. & Stewart, A.J.(2004). Gender, social class, and the subjective experience of aging: self-perceived personality change from early adulthood to late midlif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0(12), 1599-1610.
- Russell, C.(2007). What do older women and men want?: gender differences in the lived experience of aging. *Current Sociology*, 55(2), 173-192.
- Thompson, E. H.(2006). Images of old men's masculinity: still a man? *Sex Roles*, 55, 633-648.
- Wilinska, M.(2010). Because women will always be women and men are just getting older: intersecting discourses of ageing and gender. *Current Sociology*, 58(6), 879-896.
- Yun, R. J. & Lachman, M. E.(2006). Perceptions of aging in two cultures: Korean and American views on old age. *Journal of Cross-Cultural Gerontology*, 21, 55-70.

韓國老年學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012, Vol. 32, No. 1, 103~114.

Perception of Old Age among Aged Men and Women

Kim, Cheong-Seok · Kim, Songeun

Professor, Department of Sociology, Dongguk University-Seoul ·

Graduate School Student, Department of Sociology, Dongguk University-Seoul

This study addresses two questions regarding perception of old age: the age that the currently aged consider they become elderly persons and whether they perceived themselves so. While previous studies suggest such perception would differ by various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the present study focuses on gender differentials. Using the 2004 National Survey on Elderly conducted by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t analyzes whether and how the perceived age of becoming elderly and the self-approval as an elderly member would differ between elderly men and women. The main results show that elderly women are more likely to set lower age for onset of elderly and perceive themselves elderly. Furthermore, the main factors affecting perceived age of becoming elderly and self-approval as an elderly are different by gender although some are common. For instance, while education is important for men, health status is critical for women. The findings reveal that the experience of becoming old is different for men and women and suggest the gendered process of individual aging.

Key words: Gender differential, Perceived age becoming elderly, Self-perception as an elderly person